



청우토탈컴 기자간담회

## 마스터인쇄에서 디지털인쇄로 전환 30년 원칙 경영에 최신 장비로 힘 더해

서울 을지로에 자리 잡은 청우토탈컴(대표 이성근)은 지난달 11일 신도리코에서 공급하는 디지털인쇄기 ●대를 도입하고 이를 소개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청우토탈컴이 이번에 도입한 디지털인쇄기는 신도리코에서 공급하고 있는 프레스C7000, 프로1200이며 이 장비들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소량다품종의 인쇄물과 짧은 납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 한계상황 마스터인쇄에서 디지털인쇄로 전환해

디지털인쇄기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청우토탈컴의 이성근 사장은 “이제 마스터인쇄의 시대는 갔으며, 더 이상 마스터인쇄만으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신도리코와 연결이 되었고 청우토탈컴의 사업여건에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해 도입을 결정했으며 도입을 결정하고 설치를 마친 지금까지 충분한 지원과 뛰어난 성능으로 불만은 전혀 없으며 새삼 디지털인쇄기가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과 성능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우토탈컴은 설립 이후, 제책 인쇄 및 편집 디자인을 고루 운영해 온 청우토탈컴은 마스터인쇄에 특화된 경영으로 성장해 왔다. 실제로 마스터인쇄가 한창이던 시절에는 여러 대의 마스터인쇄기를 돌리면서 많은 거래처와 거래하고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기도 했으며 을지로와 충무로 일대에서 청우토탈컴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이는 ‘성실과 주인 의식’을 개인의 가치관이자 회사의 경영철학으로 삼고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일 해온 이성근 사장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이성근 사장은 지난 2007년 인쇄문화의 날 행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같은 해 서울시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어려움 딛고 디지털인쇄로 승부수

그동안 마스터인쇄에 전념해온 청우토탈컴은 지금 디지털인쇄에 있어서는 이제 출발점에 서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공급업체에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준 덕분에 디지털인쇄의 기능에 대해 열심히 배우고 있으며, 배울수록 디지털인쇄를 이용해서 고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청우토탈컴은 지난해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실적부진이나 부도위기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갈수록 마스터시장 축소되고 있어 일찌감치 회사를 정리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었다. 이 때, 한동안 고민과 씨름하던 이 사장은 회사를 믿고 따라준 직원들이 떠나는 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대로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 지난 30년 동안 추구해온 성실과 주인의식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리고 새롭게 사업을 정비했다.

현재는 회사를 떠났던 직원들을 다시 부르는가 하면 디지털인쇄기의 구입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

편으로 새로운 시장개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준비를 하고 있다.

### 인간미와 원칙 지키는 경영 펼쳐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렇듯이 청우토탈컴도 회사 대표의 성향과 의지가 회사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사장은 자신의 이들도 대를 이어 인쇄업에 몸을 담고 있으며 그동안 청우토탈컴의 사옥에 입주해 있었지만 꼬박꼬박 월세를 받아왔다. 이는 원칙을 지키는 경영을 해야만 직원들의 애사심과 소속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소신 때문이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직원들의 높은 성실성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았다. 더 나아가 청우토탈컴은 믿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기여했다.

그래서, 새롭게 정비를 마치고 출발하는 청우토탈컴은 작은 회사지만 직원들의 배려하는 여러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밤늦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가 하면 건물 옥상에는 별도의 휴식공간을 마련할 예정이기도 하다.

화려한 과거에 사로잡혀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기업도 도태되고 마는 IT와 디지털로 상징되는 21세기에, 인정과 원칙이라는 아날로그적인 경영철학을 갖고 새롭게 도전하는 청우토탈컴은 전통을 되살리는 성공적인 경영을 할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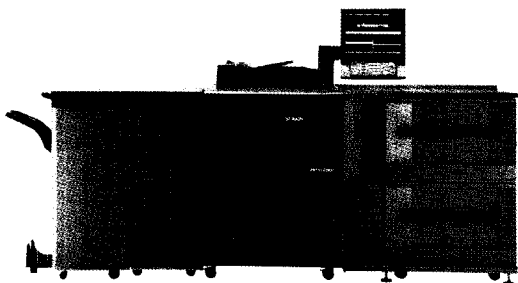
### 도입 주요 장비 소개

**PRESS C7000** : PRESS C7000은 분당 71(A4기준)의 초고속 출력, 안정되고 섬세한 컬러 표현, 편리한 조작 인터페이스 돋보이는 대량출력 인쇄사를 겨냥한 장비이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원본 데이터를 정교하고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출력 품질이 장점으로 고해상도의 'Simitri HD' 토너를 사용하여 이미지 선명도를 높였다. 또한 분광광도계를 통한 컬러 판독시스템을 장착해 인쇄품질을 안정화한 것과 2중 구조의 고강성 프레임 본체로 설계해 내구성은 높이고 용지의 진동과 비틀림을 최소화했다. 업서부터 A3 와이드 사이즈까지 대응할 수 있으며 64g/㎡부터 300g/㎡까지의 용지에 대응한다. 최대 1만760매의 대용량 급지도 강점이다.

**PRO 1200** : Pro 1200은 분당 120매의 작업 속도를 갖고 있는 흑백 디지털 프로덕션 프린터이다. Real 1200dpi 해상도(1200×1200dpi)의 고품질 인쇄로 가는 선과 작

dms 글꼴은 또렷하게, 그림이나 사진은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상업인쇄시장의 니즈를 위해 설계된 PRO 1200은 40 ~ 350g/㎡ 까지 다양한 두께의 용지 급지가 가능하고 용지 종류에 있어서도 일반 용지, 오프셋 인쇄 용지는 물론 코팅 용지에서도 인쇄가 가능해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PRESS C7000



Pro 1200